내 내면의 세계를 모르고 어찌 바깥 세계를 알겠습니까

☞ A17면에서 계속

남김없이 천백억화신이 되죠. 모든 사람들이 응해 달라는 대로 약사로도 응해 주시고, 관세음으로도 응해 주시고, 지장으로도 응해 주시고, 천만 가지 만만 가지를 다 모습을 바꿔 가면서 찰나에 응해 주시니 그것이 바로 천백억화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속가에서 산다고 하지만 스님들도 속가에서 사는 것보다 나을 게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가에 있는 사람들도 유마힐 거사처럼 그렇게 부처님과 동등하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중생을 제도한 분도 있습니다. 자기 안에부터 제도를 해야지 바깥에 끄달리면서 제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항상 이 마음이 충족되고 내가 완전히 그 이치를 알아야, 즉 말하자면은 그 순서도 의학적이기도 하고 천문학적이기도 하고, 지리학적이기도 하고 과학적이기도 하고, 천체물리학적이기도 하고 철학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체가 다 그 한마음 속에서 구성되는 거니까요.

그러니 우리 마음 자체가 어떻게 해야만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가.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 갈 수 있고, 다스리는 그 마음이 중심에서 양면을 이끌고 갈 수 있느냐. 안에서 벌어지는 마음이 팥죽 솥의 팥죽 방울이라면 방울이 일어나는 대로 "이것도 문수! 이것도 문수!" 했단 말입니다. 그게 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서, 대장이나 소장에서 만약 어느 한군데서만 파업을 일으킨대도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귀퉁이 어디고 소중하지 않은 게 없죠. 다 한마음으로 돌아가야만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지혜로워져서 부자 부렵지 않게 마음이 넓어질 수 있죠. 이렇게 마음이 부자라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도 정말 대장부의 살림살이요, 또한 어디고 가난치가 않다 이겁니다. 그것이 당당한 것이요, 그것이 부자가 돼서 부자가 아니라 내가 쓰려면, 내가 필요한 거면 어디서든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묘한 도리를 여러분이 모른다면 만날 가난하기에 바쁘죠. 그뿐만 아니죠. 가난뿐이 아니라 재난이 들어와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또는 병고가 들어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은 바깥에 있는 지렁이를 볼 때 보기 싫고 징그럽고 그렇겠지만, 여러분 속에는 똥통도 들어 있고 구더기도 있고, 또는 진드기도 있고, 거위도 있고, 촌충도 있고 벼룩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건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두서없는 말이지마는 잘 참작해서 들으십시오.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왜 그렇게 내 몸에 들어 있고 왜 그것이 바로 나였던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가 생긴 이래 역사를 볼 때에도, 미생물의 시대가 있었고, 곤충의 시대가 있었고, 또 그 뒤에는 공룡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나기 전에 그렇게 미리미리들 그렇게 진화돼서 올라오기 위한 그 수련이, 그렇게 수많은 모습으로 바뀌 가면서 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인간까지 온 것이 그게 바로 정신 수행입니다. 자연적으로 지수화풍이 바탕이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모두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쫓고 쫓기면서, 마음이 그렇게 해서 진화돼 가지고 모습을 바꾸고 바꾸고 한 게 인간까지 올라왔다 합니다. 누가 그것을 말해 주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나, 참나의 속에 다 들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인간까지 무수한 그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되어 가지고도 또 짐승으로 돼야 되겠습니까? 또는 독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행동하고 말하고, 남의 탓을 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살리고, 온통 부서지게 하고 남을 해롭게만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틀림없이 미래에 올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과거에 한 일은 현실에 너무나 더 잘 아시고요.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그 동기를 항상 지켜본다면 아마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지금 여러분 몸속에 악업 선업으로 뭉쳐 있다가 컴퓨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대로 입력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속지 마시고, 누가 되는 일은 하지 마시고, 누가 아니 되는 거는 하시고, 들이는 것도 바로 여기다 (가슴을 짚어 보이시고) 하고 맡겨서 들이고, 내는 것도 여기다 맡겨서 낼 수 있다면, 지금 레이더망에서 들이고 내면서 책정해서 다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아주 자동적으로 돼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리고 재료가 모두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항상 말했죠,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그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삼아서 돼 있다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물질세계의 의식으로서 산다면 물질세계의 노예고, 그것은 끝 간 데 없는 길을 고통스럽게 걸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살아 있으면서 죽지 않는다면 열반이 아닙니다. 살아서 이 도리를 알고 죽어야 열반이지, 만약에 살아서 이 도리를 모르고 죽는다면 그건 그냥 그대로, 그 고통 속에서 죽는다 산다도 없이 끝없는 길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깨치고 본다면 모든 것이 마음은 체가 없어서 악으로 나가도 수없이 나가고, 선으로 나가도 수없이 나갑니다. 어느 쪽으로 나가느냐가 문제죠. 야! 이게 또 묘한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내 마음이, 다스리는 마음이 없다면, 바로 거기서 맘대로 '내가 저걸 꼭 훔쳐 와야겠다. 그래서 남이야 살건 말건 나는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여기서는 (가슴을 짚어 보이시고) 그것이 나쁘고 좋고를 모르기 때문에 다 따라 줍니다. 그 마음이 서면은 악도 그만큼 있고 또 선도 그만큼 있습니다. 선이 더 많으냐, 악이 더 많으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은 똑같이 인간으로서 살지만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즐겁게 선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으로 괴롭게 사는 사람이 있죠. 만약에 같은 물을 마셔도 독사가 먹는다면 그건 독이 될 것이고 약초가 먹는다면 약초가 돼서 인간을 살립니다. 칼도 칼 나름입니다. 의사는 칼을 들어서 사람을 살리지마는 강도는 칼을 들어서 사람을 죽입니다. 이 모두가 상대성 원리입니다. 부처도 중생도 풀 한 포기도 다 내 소유로서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유가 돼야만이, 그때 가서는 나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오고, 바로 그때에 부처님이 뚜렷하고 중생이 뚜렷하고, 하는 일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고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사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듣고 글귀로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말 자체가 모두 한데로 떨어질 것입니다. 나는 거짓을 안 합니다. 한 마디라도 내가 실험하고 체험하지 않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알고 본다면 한 마디도 한 게 없고, 한 마디도 한 게 없는가 하면 한 생각 한 것도 없고 한 행동 한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터득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 실생활 속에서 바로 도가 있는 거지 실생활 빼놓고 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안으로 정신세계의 노예가 되는 건 어떤 거냐? 나를 조금 발견했을 때에 거기에서 '나는 아무개다.' 하고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시키는 걸 그대로 듣는다면 그건 정신 노예죠. 또 처음에 이렇게 믿고 거기다 놓고 갈 때 물질을 보고 남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해서 내 중심을 세우지 못하고 산다면 그거는 바로 물질세계의 노예란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게 있죠. 기독교나 가톨릭교나 불교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하죠? "저 언덕을 넘어서 만납시다," 또는 "요단강을 건너서 만납시다." 이러죠? 저편 언덕 뒤에는 항상 밝음이 있고 항상 그 생수가 있으니 그걸 없다고는 못 하죠. 끝없는 밝음이 있기 때문에 "컴컴하다, 밝다" 이런 언어도 붙지 않는 자리가 있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물질세계에 끄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세 마디로 규정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만약에 큰 독사가 여기에 있다고 합시다. 또 거위가 지렁이로 변해서 이만하게 (양 팔을 벌려 보이시고) 돼 가지고 곤충이나 세균이 전부 나와서 그냥 늘비하게 있다고 합시다. 또 저기 들어가면 머릴 풀어 산발한 귀신들이 있다 합시다. 그렇다면 의식적으로 벌써 "어이쿠!" 하겠죠?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내 마음이 체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독사한테 물리면 죽는다, 안기면 맞아 죽는다, 또는 귀신한테 말려 죽는다 그럴 겁니다. 모두 징그럽게만 보이고 똥통의 구더기는 그냥 여지없이 크게 보이고, 내 이 사대(四大)가 다 흩어져서 원점으로 돌아가도 내가 배우지 못한 영혼이라면 그냥 거길 못 건너가, 일차적으로.

일차적으로 건너가지 못하지. 그럼 이차적은 뭐냐? 기독교 가톨릭교에서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강을 건너 저 언덕에서 우리 같이 한자리를 하고 만납시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물질세계의 의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도리를 모르면 자기가 그냥 몸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배가 오기를 기다리니 오백 생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배가 옵니까? 내 의식이 저 강에 들어가면 물이 깊어서 빠져 죽는다고 알기 때문에, 도저히 배가 오지 않으면 건너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생각 끄떡하면 찰나에 갈 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넘어갈 때, 지금 이 과학적으로 본다면 블랙홀이라고 한다지만, 부처님께서는 불바퀴라고 했습니다. 그 불바퀴가 세 번째 단계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를 넘지 못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벌써 중생들은 거기를 넘어갈 때 타 죽을까 봐 뜨거워서 못 들어갑니다. 벌써 내가 물질세계에서의 그 의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내가 몸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나 아닌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로인데도 뜨거워서 죽을 이유도 없고 뜨거울 이유도 없고, 간다 온다 할 까닭도 없고, 어딜 들어간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사이가 없고, 나온다 하더라도 나오는 사이가 없건만, 그대로 여여하게 뚫리고 그대로 여여하건만 몸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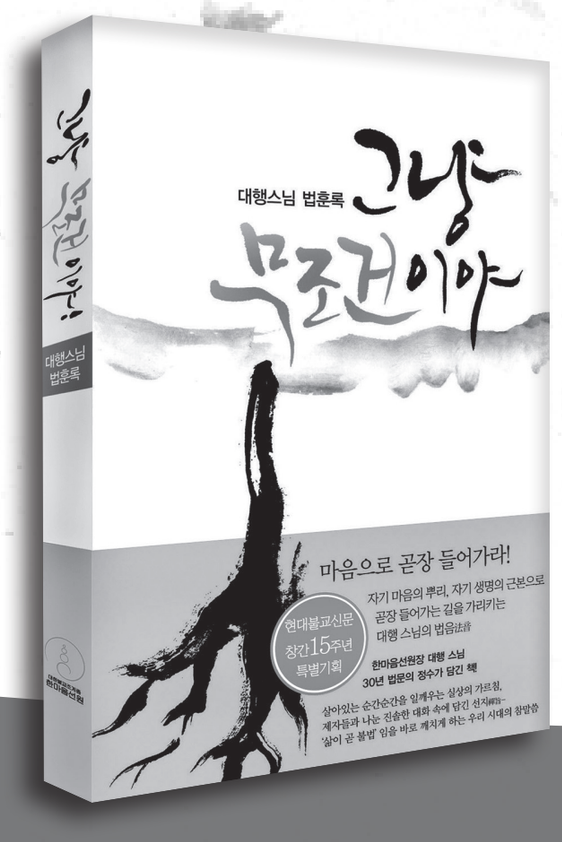
그것은 첫 번에 벌써 내 이 몸속에 있는 그 의식들이 전부 모습을 그렇게 해 가지고 보이니 그 길을 못 간다는 얘기죠. 그게 딴 데서 와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 몸뚱이가 사대로 흩어지니까 내 몸속에서 그 영혼들이 말입니다. 그 의식들이 그냥 쫙 앞을 가리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딱 보일 때 중심을 잡고서 '허, 너와 나와 둘이 아닌데.' 하고서 딱 한생각을 넘기면 그냥 다 보살로 화하고 부처로 화할 텐데, 이건 한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넘질 못하죠. 재차 말하지만 빠져 죽을까 봐 넘지 못하고, 배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타 죽을까 봐 그 불바퀴 속을 못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니 그 도리밖에 없거든. 우리의 이 마음, 내 마음 빼놓고는 부처를 이룰 수가 없고 내 마음 빼놓고는 도저히 앞뒤 뚫린 용문을 열 수가 없어. 본래는 여여하고 열려 있는데 자기 생각이 딱 닫아 놓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서부터 열까지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미운 걸 보면 그렇게 밉고, 잘못하는 걸 보면 그렇게 보기 싫고, 또 부부지간도 그렇고 자식지간도 그렇고 일일이 그거를 미워해, 잘못하는 걸 보면. 그러나 이쁜 일을 조금 할 때는 좋아서 그냥 발발발발 하지, 누가 좋은 말을 해 주면 좋고, 속이야 어떻게 됐든지 좋은 말을 야불야불 해 주면 아주 좋아하고, 진실로써 '너는 이렇다' 지적을 해 주면 그게 듣기 싫어서 왈칵 화가 나고, '너 두고 보자.' 이러고. 이러는 마음이 자기를 깎아 먹게 돼요. 이 세상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있으니깐 모두 내 탓으로 돌리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내가 공해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다음 호에 계속)

내 마음 빼놓고는 부처를 이룰 수가 없고
내 마음 빼놓고는 도저히 앞뒤 뚫린 용문을 열 수가 없어.
본래는 여여하고 열려 있는데
자기 생각이 딱 닫아 놓고 있으니까.

※위 법문은 1991년 7월 21일 정기법회 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